

제4차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

- 저출산맞과 적정인구 -

| 일 시 | 2011. 7. 12(화) 14:00~17: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 순

P · R · O · G · R · A · M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인사말씀 최희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4:10~15:10 주제발표

발 표 1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최진호 교수(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발 표 2 ‘한국의 적정인구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이삼식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15:10~15:20 휴식

15:20~16:00 지정토론

좌장 이승욱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포럼 저출산분과위원장)

토론자 조남훈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태현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김한곤 교수(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6:0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차 례

C · O · N · T · E · N · T · S

- ▶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1

최진호 교수(아주대학교 사회학과)

- ▶ 한국의 적정인구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17

이삼식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1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최 진 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은 저출산의 덫에 걸렸는가?

2011. 7.12

최진호 (아주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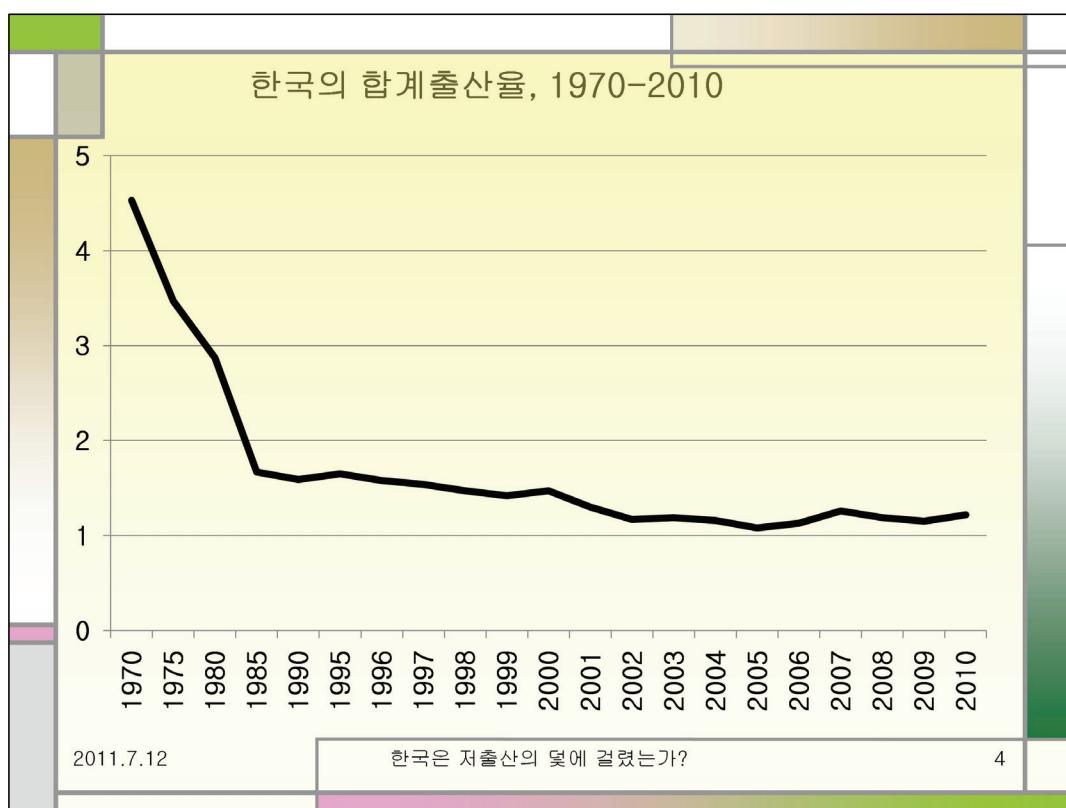
1. 한국의 인구변천: 초 저출산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5년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로 최저를 기록하였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약간 증가해 1.13과 1.26를 나타내었음.
-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8년에 1.19, 2009년에는 1.15로 감소하다 2010년에 1.22로 다소 증가함.
-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요 출산력 지표

	출생아 수 (천 명)	조출생률 (인구천명당)	합계출산율 (여자1명당)
1970	1,006	31.2	4.53
1975	874	24.8	3.47
1980	865	22.7	2.87
1985	662	16.2	1.67
1990	658	15.4	1.59
1995	721	16.0	1.65
1996	695	15.3	1.58
1997	678	14.8	1.54
1998	643	13.8	1.47
1999	616	13.2	1.42
2000	637	13.4	1.47
2001	557	11.6	1.30
2002	497	10.3	1.17
2003	493	10.2	1.19
2004	476	9.8	1.16
2005	438	9.0	1.08
2006	452	9.2	1.13
2007	497	10.1	1.26
2008	466	9.4	1.19
2009	445	9.0	1.15
2010	470	9.4	1.22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3



2. 초 저출산의 원인

- 한국의 초 저출산의 원인은 주로 혼인연령의 상승과 독신자의 증가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 한국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는 남자가 27.8, 여자는 24.8세 였으나 2010년에는 남자 31.8세 여자는 28.9세로 상승하였음.
- 따라서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여성의 미혼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5

연도별 초혼 연령

	1981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세)	26.4	27.8	28.4	29.3	30.9	30.9	31.1	31.4	31.6	31.8
여(세)	23.2	24.8	25.4	26.5	27.7	27.8	28.1	28.3	28.7	28.9
차 이	3.2	3.0	3.0	2.8	3.2	3.1	3.0	3.1	2.9	2.9

자료 :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5
통계청, 「2010년 혼인통계 결과」, 2011.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6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추이

(단위 %)

	1970	1975	1980	1990	1995	2000	2005
15-19	97.1	97.4	98.2	99.5	99.2	99.3	99.6
20-29	34.6	39.7	43.4	50.8	56.5	63.2	76.1
20-24	57.2	62.5	66.1	80.5	83.3	89.1	93.7
25-29	9.7	11.8	14.1	22.1	29.6	40.1	59.1
30-34	1.4	2.1	2.7	5.3	6.7	10.7	19.0
35-39	0.4	0.7	1.0	2.4	3.3	4.3	7.6
40-44	0.2	0.3	0.5	1.1	1.9	2.6	3.6
45-49	0.1	0.2	0.3	0.6	1.0	1.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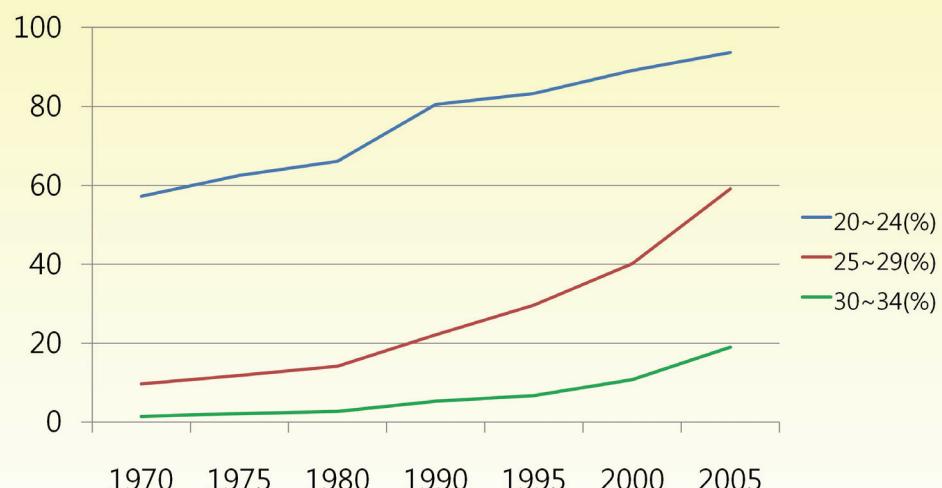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통계청,『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005. 7. p. 20.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7

연령별 미혼여성 비율, 1970-2005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8

- 그러면 이와 같은 한국의 초 저출산 경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에서도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있음.
-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5미만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 있음.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끝에 걸렸는가?

9

저출산 국가의 저출산 지속기간

	연도 (TFR<1.5)	지속기간	2008 TFR
독일	1983 (1.43)	26년	1.38
이태리	1984 (1.48)	25	1.41
오스트리아	1985 (1.47)	24	1.41
스페인	1988 (1.45)	21	1.46
그리스	1989 (1.40)	20	1.51
체코	1994 (1.44)	15	1.50
러시아	1995 (1.34)	14	1.30
일본	1995 (1.42)	14	1.37
슬로바키아	1996 (1.47)	13	1.32
헝가리	1996 (1.46)	13	1.35
폴란드	1997 (1.47)	12	1.39
한국	1998 (1.45)	11	1.19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끝에 걸렸는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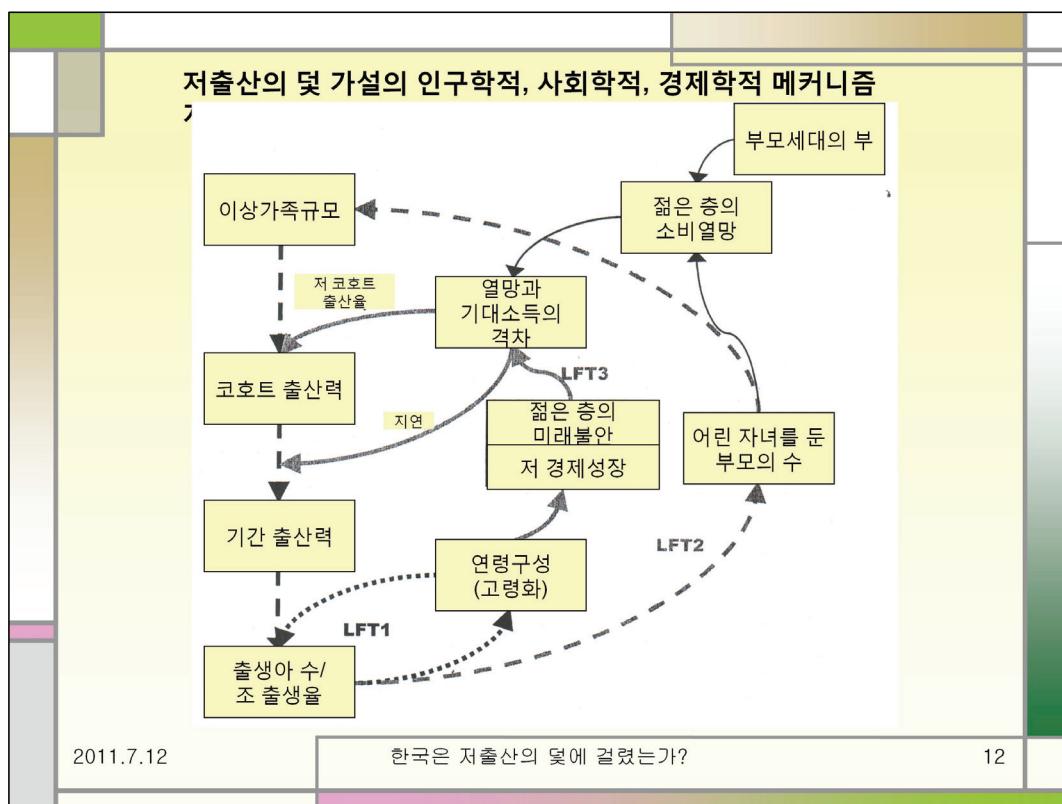
3. 저 출산의 뒷 가설

- 2006년에 Lutz 등 유럽인구학자들이 유럽의 일부 국 가와 일본, 한국 등의 초 저출산현상을 설명하기 위 하여 저출산 뒷(Low Fertility Trap) 이라는 가설을 제안함.
- 이 가설은 저출산현상을 인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상호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함.
- 실제로 Skirbekk 은 이 가설을 일본의 경우에 적용시 켜 아마도 일본은 저출산의 뒷에 걸린 것으로 결론 짓고 있음.
- 최근 엄동욱(2009) 도 한국이 저출산의 뒷에 걸린것 으로 보고함.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11



-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지표분석이 필요함.

- 1) 인구학적 조건: 가임여성의 수와 출생아수
- 2) 사회학적 조건: 이상자녀수
- 3) 경제학적 조건: 젊은층의 소비열망과 장래 기대소득의 격차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13

가임여성인구

(단위: 천명)

연도	여성의 연령								
	계	20~39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95	13,122	8,588	1,923	2,197	2,208	2,168	2,015	1,442	1,169
1996	13,325	8,597	1,950	2,121	2,256	2,107	2,113	1,572	1,206
1997	13,485	8,591	1,973	2,048	2,289	2,069	2,185	1,680	1,240
1998	13,592	8,549	1,985	1,971	2,276	2,103	2,199	1,776	1,282
1999	13,659	8,498	1,946	1,913	2,245	2,158	2,181	1,887	1,328
2000	13,716	8,446	1,853	1,914	2,193	2,193	2,146	1,990	1,426
2001	13,774	8,382	1,749	1,940	2,115	2,241	2,087	2,087	1,556
2002	13,785	8,326	1,640	1,962	2,041	2,273	2,050	2,158	1,660
2003	13,758	8,278	1,553	1,974	1,962	2,259	2,082	2,173	1,753
2004	13,729	8,202	1,508	1,935	1,904	2,226	2,136	2,156	1,864
2005	13,670	8,094	1,490	1,844	1,905	2,175	2,170	2,121	1,965
2006	13,615	7,991	1,500	1,741	1,933	2,100	2,217	2,063	2,061
2007	13,579	7,875	1,539	1,634	1,958	2,030	2,253	2,030	2,135
2008	13,532	7,727	1,580	1,549	1,974	1,958	2,246	2,069	2,157
2009	13,461	7,570	1,614	1,506	1,939	1,905	2,220	2,129	2,147
2010	13,347	7,417	1,648	1,489	1,848	1,909	2,171	2,166	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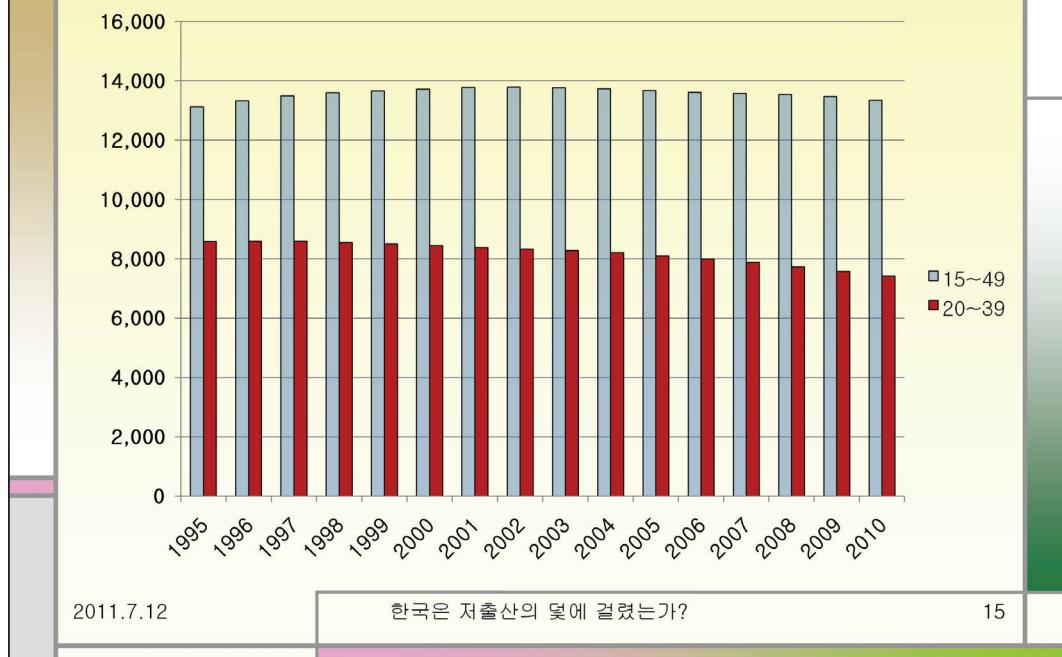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1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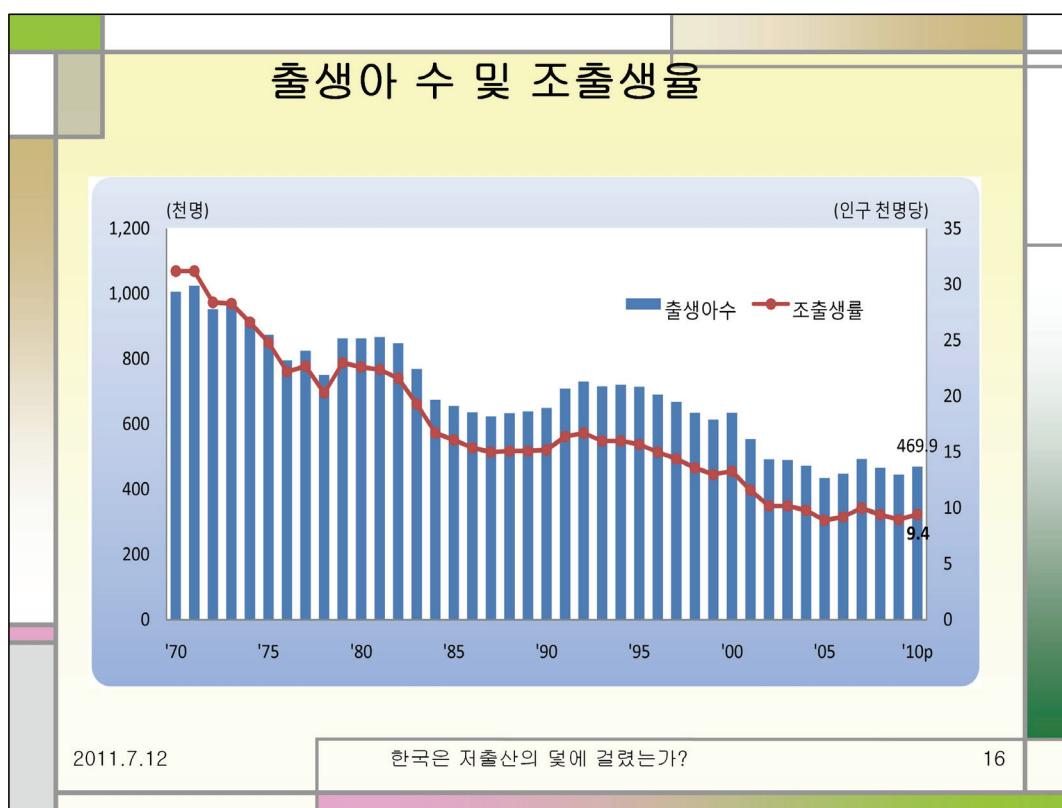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14

가임 여성 수



출생아 수 및 조출생율



- 현재 한국의 경우는 가임여성의 수와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 가설의 인구학적 가설은 충족하고 있음.
- 또 이상적인 자녀의 수에 있어서도 2006년까지는 유배우부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2.0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최근 2.0명 이하로 떨어져 사회학적인 조건도 충족시키고 있음.
- 젊은 층의 열망과 기대소득의 격차에 관하여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젊은 층의 실업 및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화 경향, 그리고 고학력화의 가속화 추세 등으로 미루어 보아 경제학적인 조건도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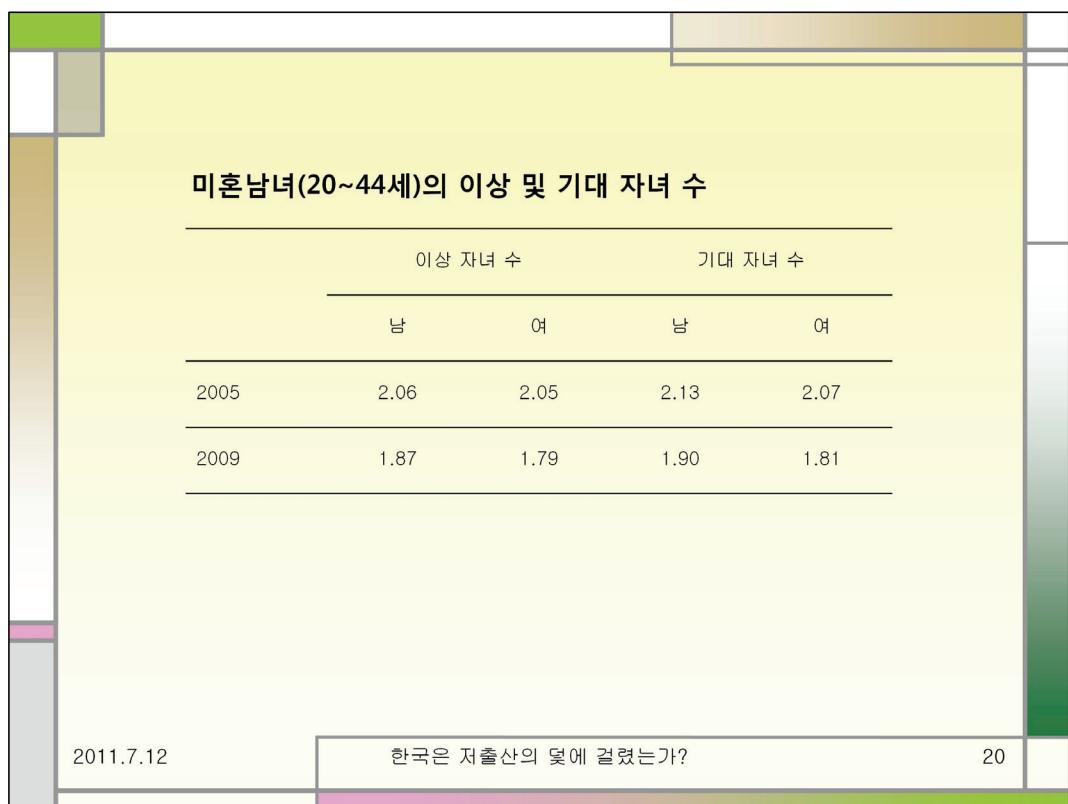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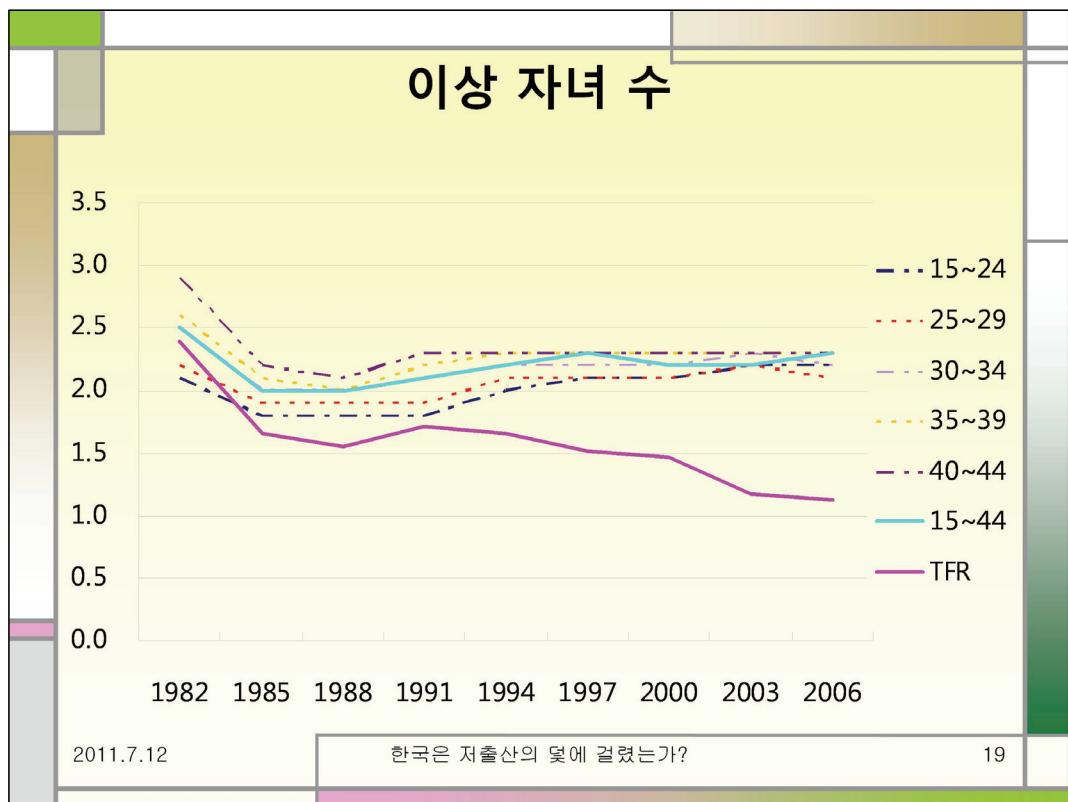
연령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15~24세	2.4	2.1	1.8	1.8	1.8	2.0	2.1	2.1	2.2	2.2
25~29세	2.5	2.2	1.9	1.9	1.9	2.1	2.1	2.1	2.2	2.1
30~34세	2.8	2.5	2.0	2.0	2.1	2.2	2.2	2.2	2.3	2.2
35~39세	3.0	2.6	2.1	2.0	2.2	2.3	2.3	2.3	2.3	2.3
40~44세	3.2	2.9	2.2	2.1	2.3	2.3	2.3	2.3	2.3	2.3
전체	2.8	2.5	2.0	2.0	2.1	2.2	2.3	2.2	2.2	2.3

주 : 1991년은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18



유배우 여성(20~44세)의 이상 및 기대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실제 자녀 수
전체	1.97	1.94	1.66
20~29세	1.91	1.79	1.00
30~34세	1.93	1.90	1.49
35~39세	2.00	2.02	1.83
40~44세	1.99	1.94	1.85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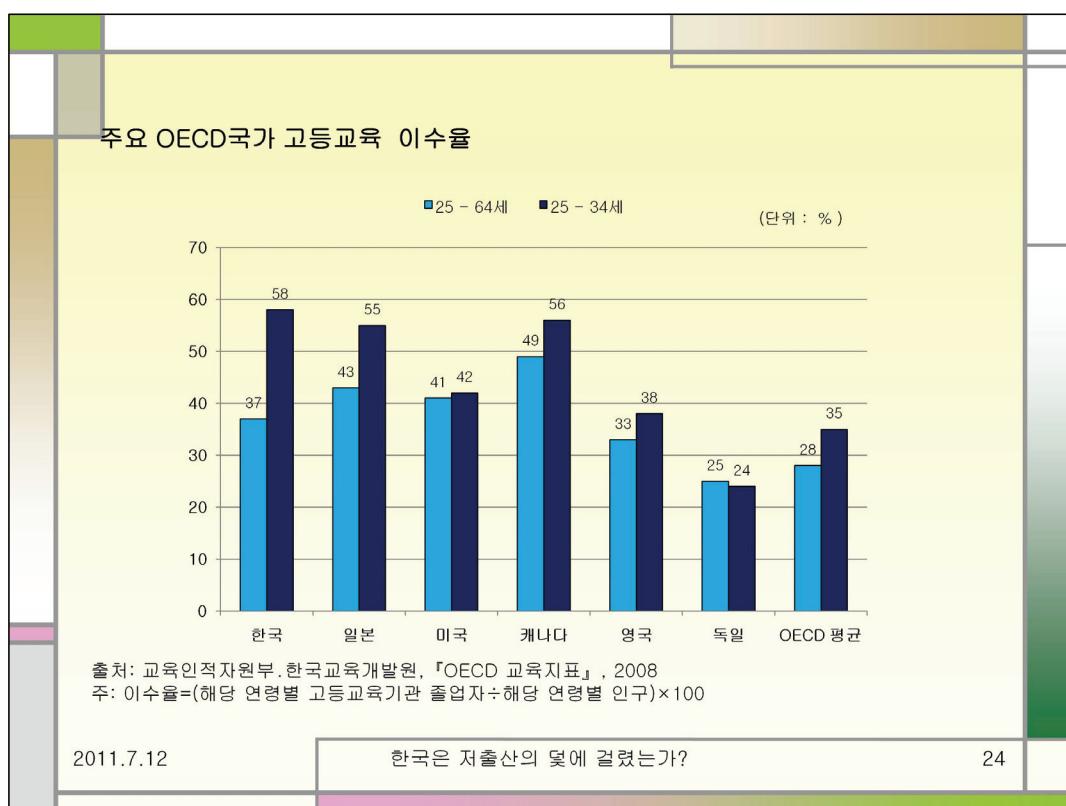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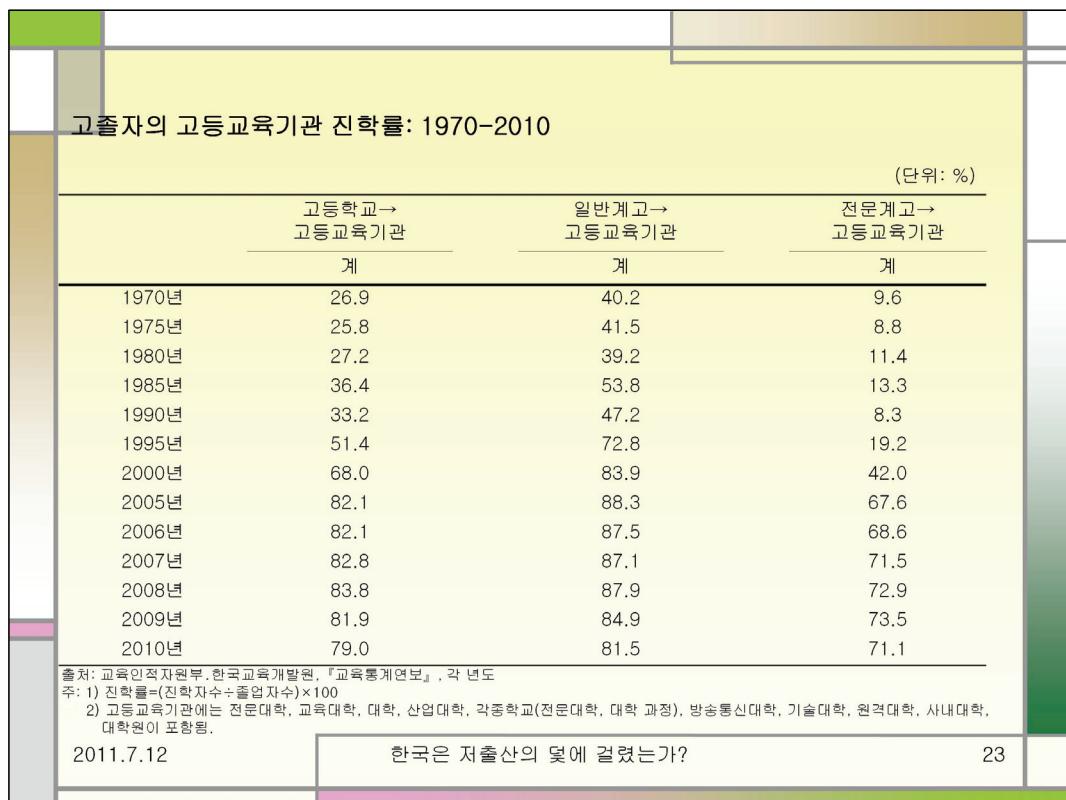
4. 고학력화와 저출산

-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학력화는 초 저 출산 경향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 할 수 있음.
- 2008년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83.8%가 전 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어 매우 높 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음..
- 이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 은 것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22



5. 청년층 실업과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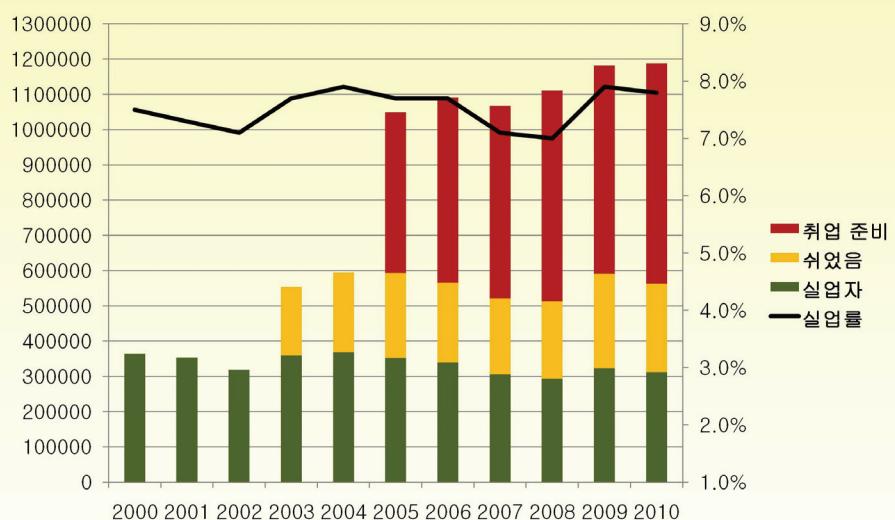
- 2010년 현재 20-29세 청년층 중 약 120만 명이 실업이나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음.
- 이를 이유 별로 보면 31만 명은 경제활동인구로서 실업으로, 25만 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서 ‘그냥 쉬었음’으로, 나머지 63만 명은 취업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현재 취업중인 취업자 중에서도 약 1/3은 비정규직으로 드러나 청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25

청년층(20-29세)의 실업추세, 2000-2010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뒷에 걸렸는가?

26

6. 결론: 정책적 함의

-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현재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단 저출산의 덫에 걸리면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렇게 해도 출산율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그 전까지 빠른 고령화로 인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정책이 긴요함.

2011.7.12

한국은 저출산의 덫에 걸렸는가?

27

2



한국의 적정인구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02

한국의 적정인구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I. 개요

- 본 내용은 “미래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방안(~'11.12)” 연구(보건복지부 용역)의 일부
 - 미래인구변동 전망(시나리오 설정, 적정인구 등 전망)
 - 사회보장부담 등 추정
 - 여성인력, 고령자인력, 외국인인력 수급 전망
 - 종합적 인구정책 방향 제시
 - * 전체 연구부문 간 feedback 실시
- 연구진
 - 총괄 : 이삼식(보사연)
 - 적정인구: 구성열 교수(연세대), 김형기 박사, 이삼식 등
 - 사회보장부문 : 보사연 전문가
 - 노동수급부문 : 보사연 외 전문가 등

II. 적정인구이론

-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 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
 - 전제
 - (i) 적정이라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후생함수
 - (ii)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에서 획득될 수 있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산함수와 이에 대한 자원 및 생태환경의 수용능력
 - (iii) 생산물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 사망력 등 인구요인과 갖는 관계 및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과 연계되는 과정(인구-경제연관관계)
 -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구와 경제성장을 연계하여 분석
 - 경제성장론과 관련된 모형은 보통 사회후생함수만 추가하면 적정인구 도출 가능
- 인구와 경제성장을 다룬 경제이론
 - 맬서스의 인구론
 - 토지 등 자본과 생산기술이 일정한 가운데 노동인구가 증가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
 -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서의 인구
 - 인당소득수준은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율과 부의 관계
 - 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적정성장의 조건을 경제성장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적정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관계
 - 인적자본이론과 인구
 - 인당소득수준은 장기적으로 인구의 질에 비례하여 증가
 -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 모든 변수의 성장률이 일정한 정상상태에서 인당소득은 증가
 - 기술진보와 인구
 - 내생적성장이론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인당소득의 성장률은 인구규모의 증가 함수

□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

○ 개념적 연구

- 생산함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회후생함수가 다르면 적정인구가 다를 수 있음(Sauvy, 1968; Votey, 1969 등)
- 인구증가가 저축·투자, 즉 자본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적정인구가 다를 수 있음(Ohlin, 1967)

○ Dasgupta(1969)의 적정인구론

- 사회후생함수에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효용수준을 현재가치화하여 반영하고 생산함수와 자본의 축적과정을 명시한 다음, 이를 인구 및 자본에 대한 최적화과정에서 적정인구를 도출

○ Samuelson(1975)의 적정인구론

-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모형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인구의 조건을 도출
-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응용하여 개인의 일생을 2개 주기로 나눈 중첩세대모형에 적용하여 일생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할 인구증가율 유추

III. 적정출산율과 인구변동

1. 생산함수 및 인구-경제 연관관계에 대한 대안적 가정

□ 사회후생함수

- 사회후생함수는 (i) 일정시점 사회전체의 복리(효용)수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ii) 장래세대의 효용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하며, (iii) 고려하는 기간을 장래의 어느 세대까지로 할 것인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

□ 생산함수

- 생산함수의 형태는 성장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obb-Douglas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노동요소를 증대시키는 방향, 즉 Harrod 중립적 기술진보를 있다고 상정)

□ 인구-경제 연관관계

- 인구-경제연관관계란 생산물의 처분이 어떻게 요소의 축적으로 연계되며 축적된 요소가 얼마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가에 대한 관계

2. 대안적 가정과 적정인구증가율 및 적정출산율

□ 사회후생함수와 생산함수 및 인구-경제연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하고 그 중 향후 가장 가능성 있는 가정에 의거하여 적정출산율 추정(구성열, 2005)

□ 추정모형

□ 적정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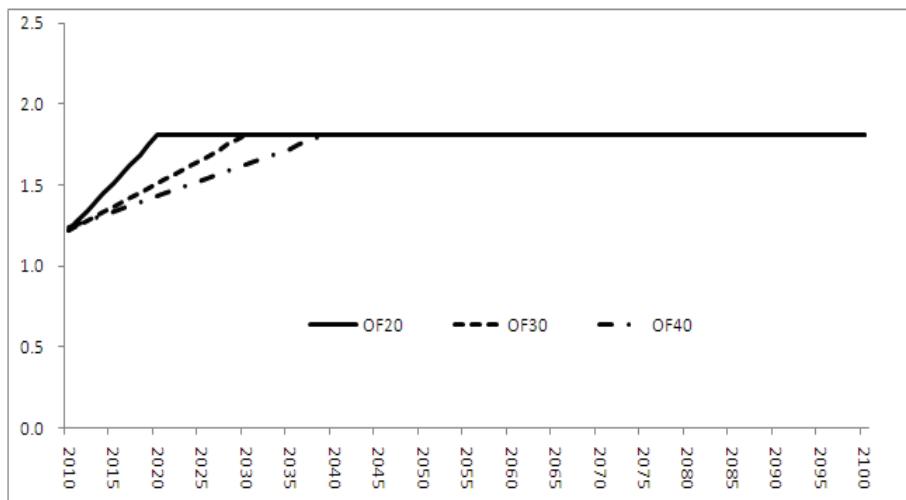
- 모형의 파라메타에 값을 부여하여 한국의 적정인구증가율과 적정출산율 산출
- 연간인구증가율=-0.33%, TFR=1.81
- 인구구조와 사망율에 변화가 없다면 인구가 매30년마다 10%감소

〈 n^* 부근에서 파라메타 값의 $\pm 1\%$ 변화가 n^* 및 TFR*에 미치는 영향〉

	파라메타 값 변화가 n^* 에 미치는 영향			파라메타 값 변화시 n^*			파라메타 값 변화시 TFR*		
	전망치	편비분 계수	편 탄력도	-1%	0%	+1%	-1%	0%	+1%
α	0.24	0.56227	41.066	-0.00463	-0.00329	-0.0019	1.74	1.81	1.89
m	0.0276	0.08983	0.75	-0.00331	-0.00329	-0.0033	1.81	1.81	1.81
ρ	0.045	-1.47995	-20.26	-0.00262	-0.00329	-0.004	1.85	1.81	1.78
r	0.3243	0.13887	13.7	-0.00373	-0.00329	-0.0028	1.79	1.81	1.84
β	1	-0.00577	-1.75	-0.00322	-0.00329	-0.0033	1.82	1.81	1.81
c/q	1.6	-0.0607	-29.55	-0.00231	-0.00329	-0.0043	1.87	1.81	1.76
q	0.625	-0.3013	-57.3	-0.00137	-0.00329	-0.0051	1.92	1.81	1.71

3. 적정출산율 적용시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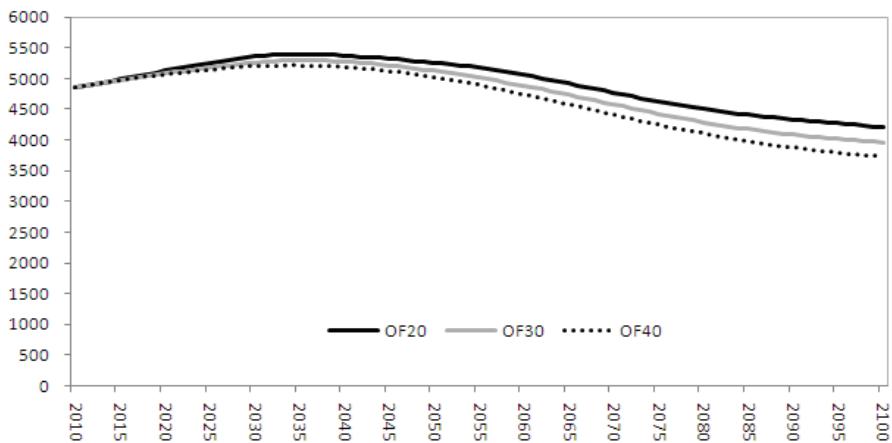
- 적정출산율로의 접근
 - 적정출산율(optimun Fertility) 접근 속도에 따라 세가지로 가정
 - OF20: '10년 1.22 → '20년 1.81
 - OF30: '10년 1.22 → '30년 1.81
 - OF40: '10년 1.22 → '40년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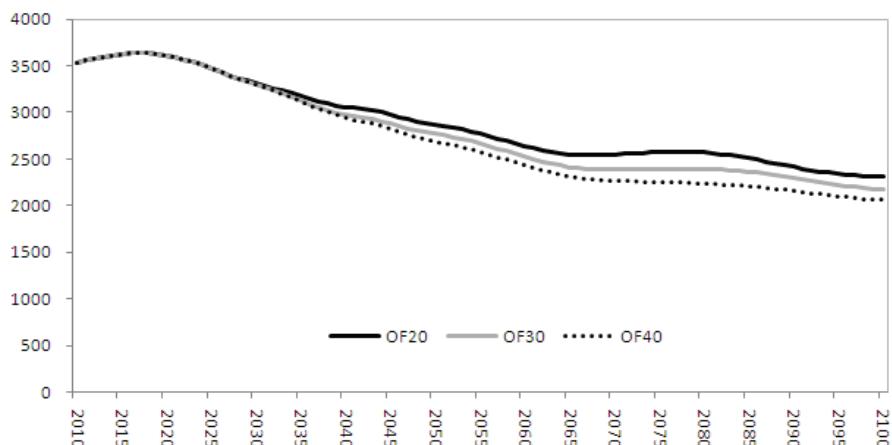
- 다른 가정(사망률, 국제인구이동)은 통계청 인구추계시(2006) 적용 가정에 최근 실측치 반영하여 적용

□ 적정출산율 지속시 인구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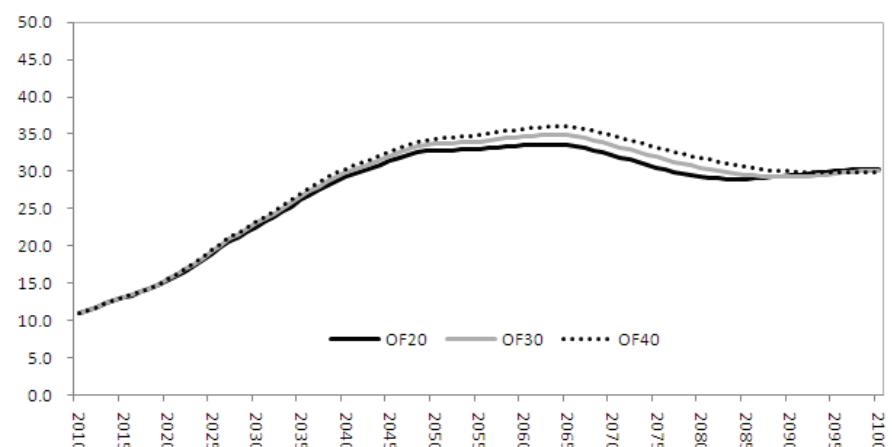
○ 총인구(만명)



○ 생산가능인구(만명)



○ 고령화수준(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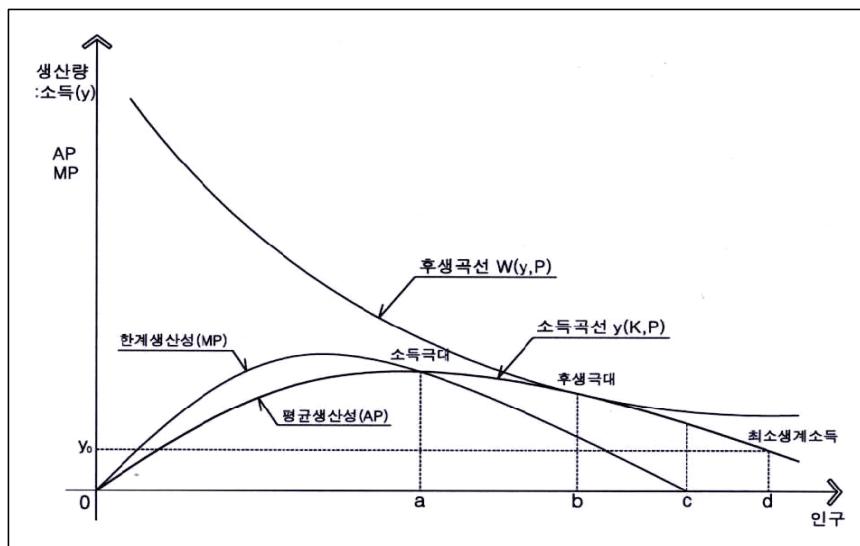


IV. 적정인구규모

1. 개념

- 적정출산율을 적용한 인구는 우리나라 현재의 인구와 연동하여 추정한 관계로 그 규모나 구조가 반드시 적정한 것으로 간주 곤란
 - 이러한 한계점 극복위해 적정인구이론을 적용한 적정인구규모 추정(현 인구 규모 및 구조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추정)
- 적용이론
 - 적정인구 개념은 후생극대의 인구, 소득극대의 인구, 한계생산성 0의 인구, 최 소생계소득이상의 인구 등 다양하게 정의
 - 여기에서는 최대소득인구 개념 적용

[적정인구규모의 범위]



2. 추정함수

- 후생과 소득 개념에 근거하여 후생함수와 생산함수를 적용하여 인구(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총생산량)들의 곱의 회귀식 도출
 - 종속변수 : 인구(국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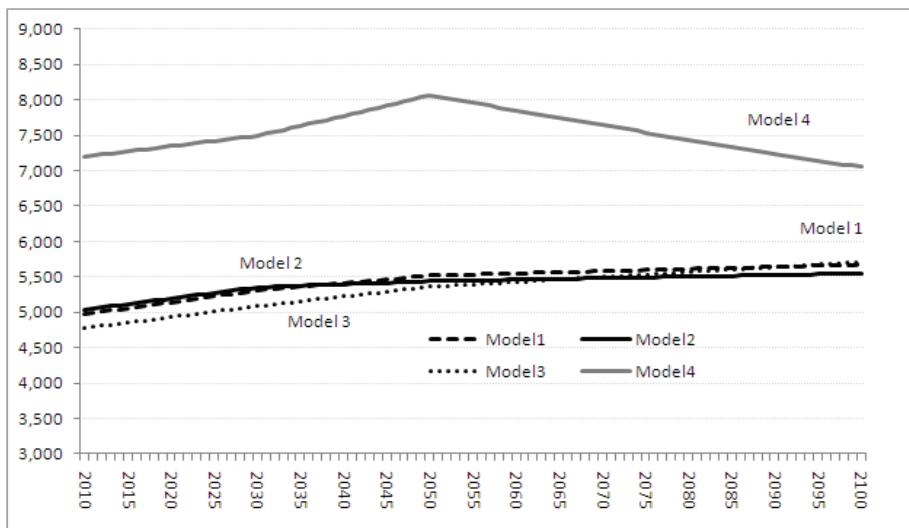
- 설명변수 :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률, 교육수준, 국토유효면적, 에너지량,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 혼잡비용(평지인구밀도와 혼잡비율 이용) 등

□ 추정모형

- 모형1: 10개국 표본(한국이 장래 세계 10위 내외의 GDP규모 국가 가정)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 모형2: 15개국 표본(10개국+세계경제중심지역 위치, 소득수준 한국과 비슷, 인구 천만 명 이상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추가)
- 모형3: 30개국 표본(4백만 명 이상이면서 일인당GDP가 한국의 1/2 이상 국가 추가)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우디, UAE,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체코, 폴란드, 캐나다 및 미국
- * 한국의 하한 적정인구로 간주
- 모형4: 179개국 표본(세계 대부분인 179개국 선정)
 - * 한국의 최대수용인구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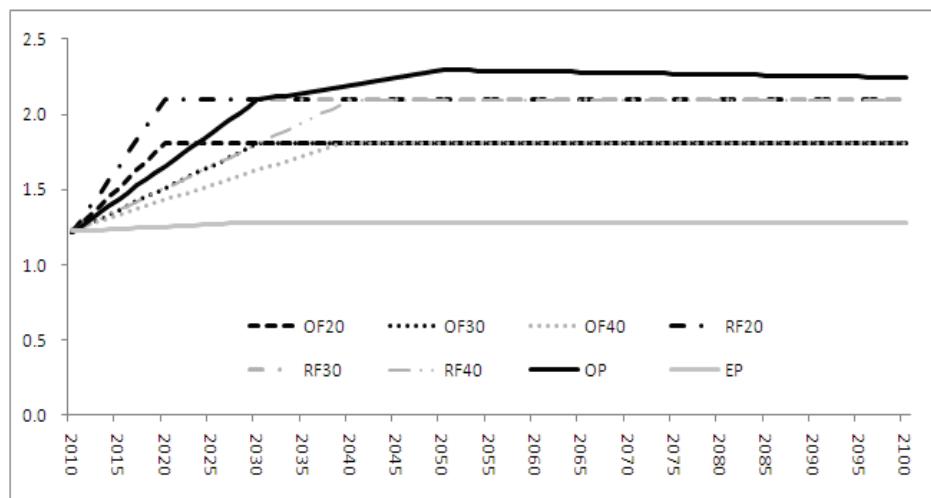
3. 추정결과

□ 적정인구규모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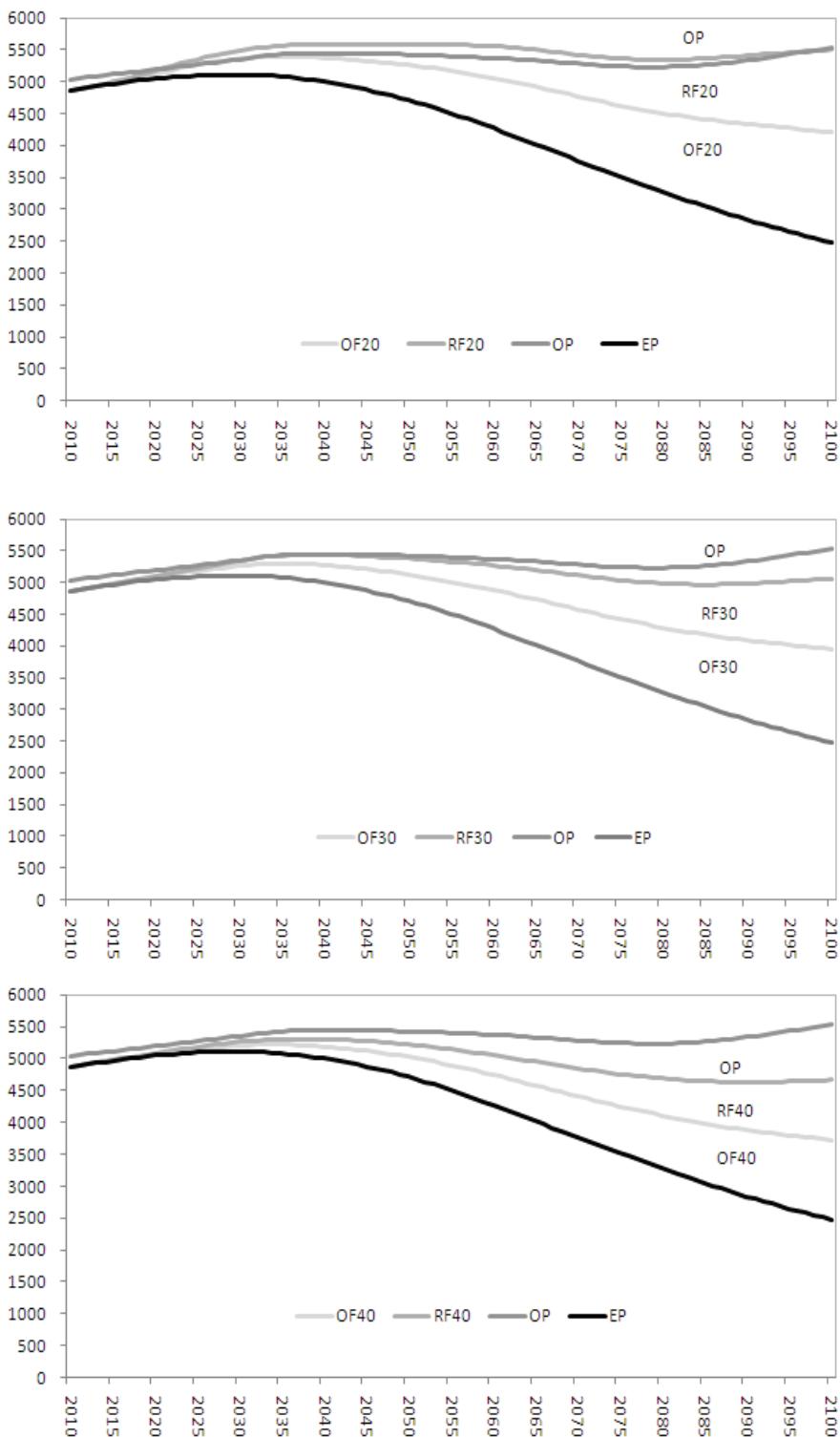


V. 향후 인구변동과 적정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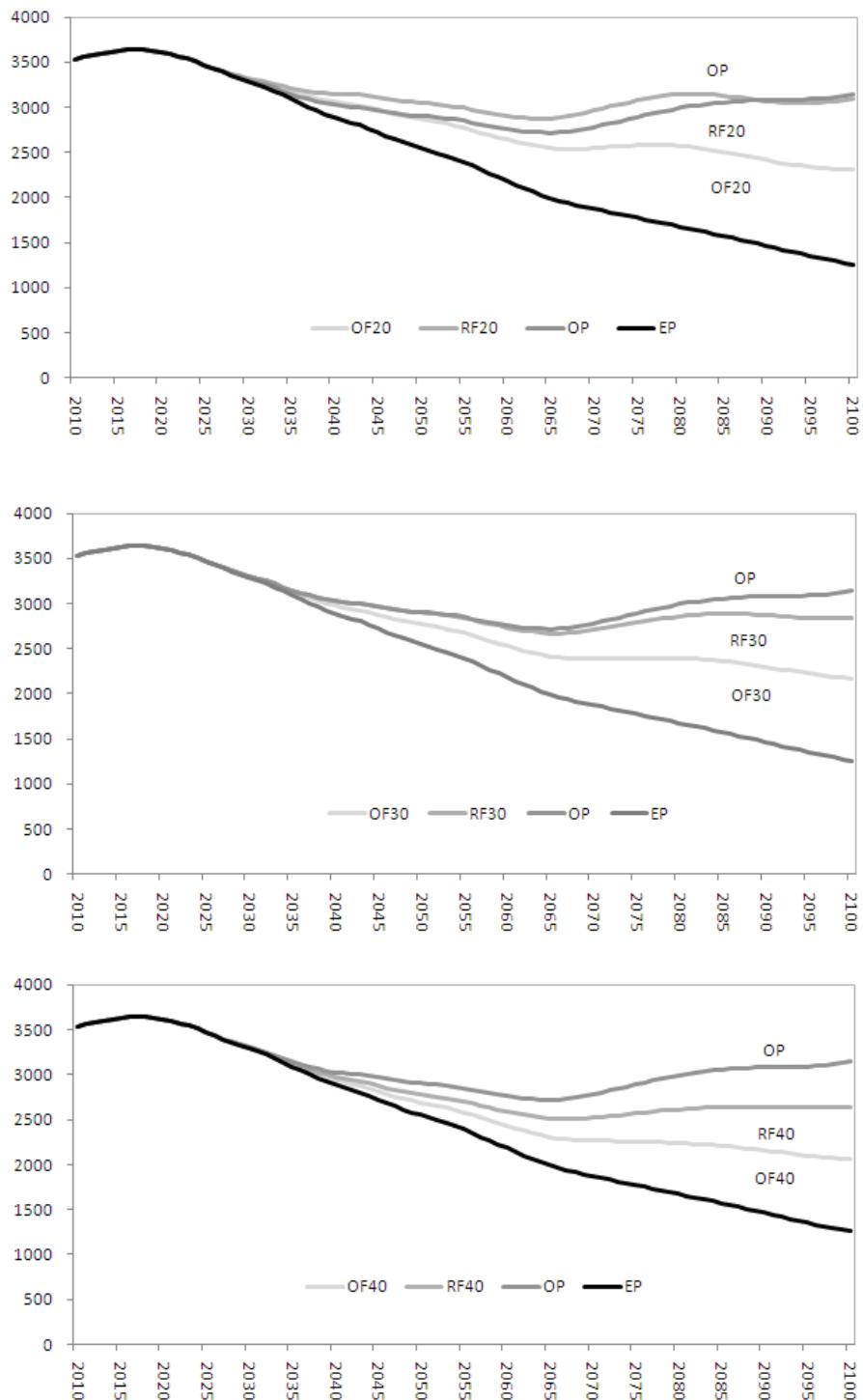
- 출산율 가정
 - 인구대체출산율 추가(비교 목적)
 - RF20: '10년 1.22 → '20년 1.81
 - RF30: '10년 1.22 → '30년 1.81
 - RF40: '10년 1.22 → '40년 1.81
 - 적정인구규모 유지 위한 출산율
 - OP : '10년 1.22 → '30년 2.10 → '50년 2.30 → 2100년 2.25
 - 최근 출산율 수준 유지(EP : '30년 1.28, 통계청 2006 추계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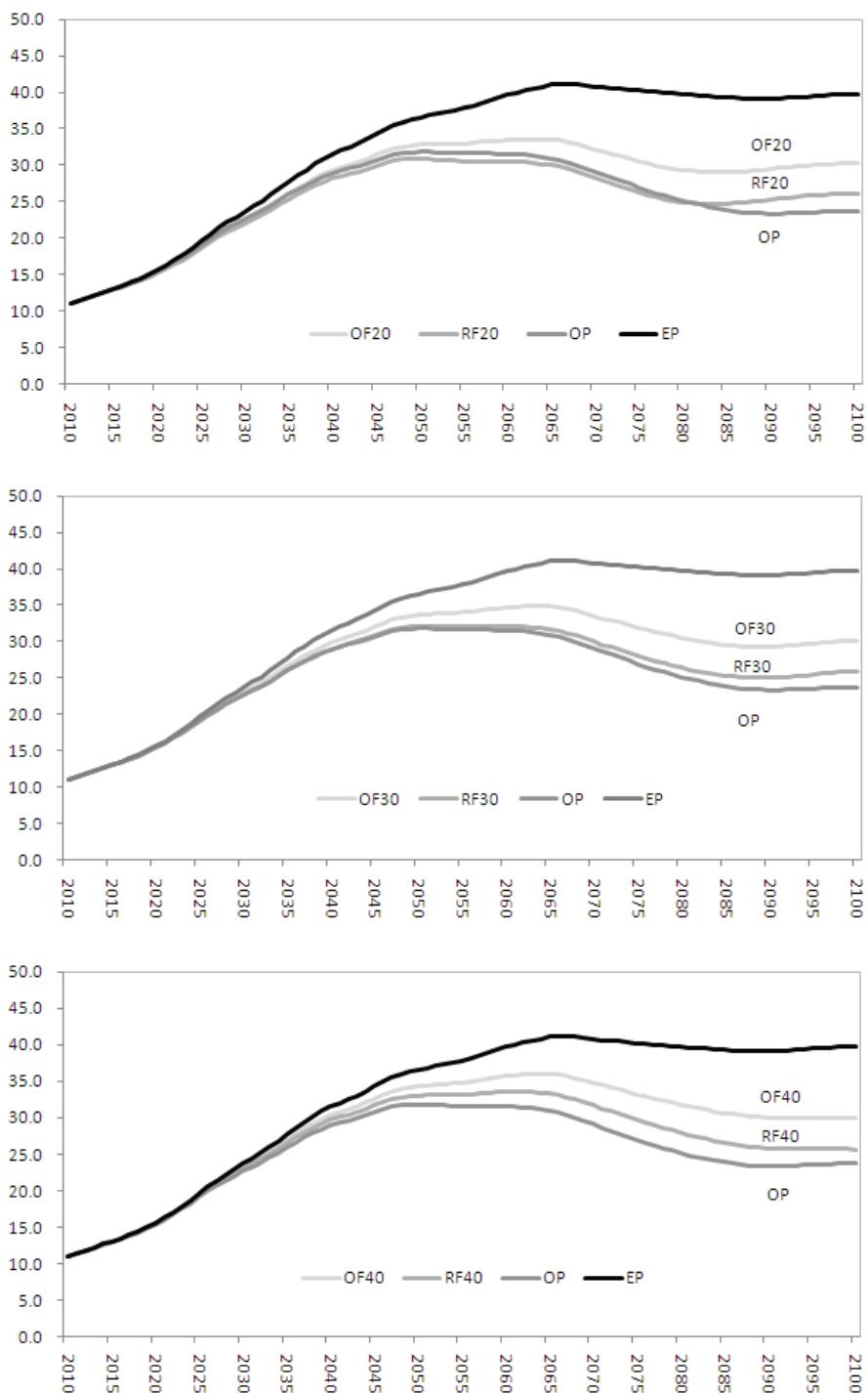
□ 적정출산율 및 적정인구규모 경로와 총인구 변동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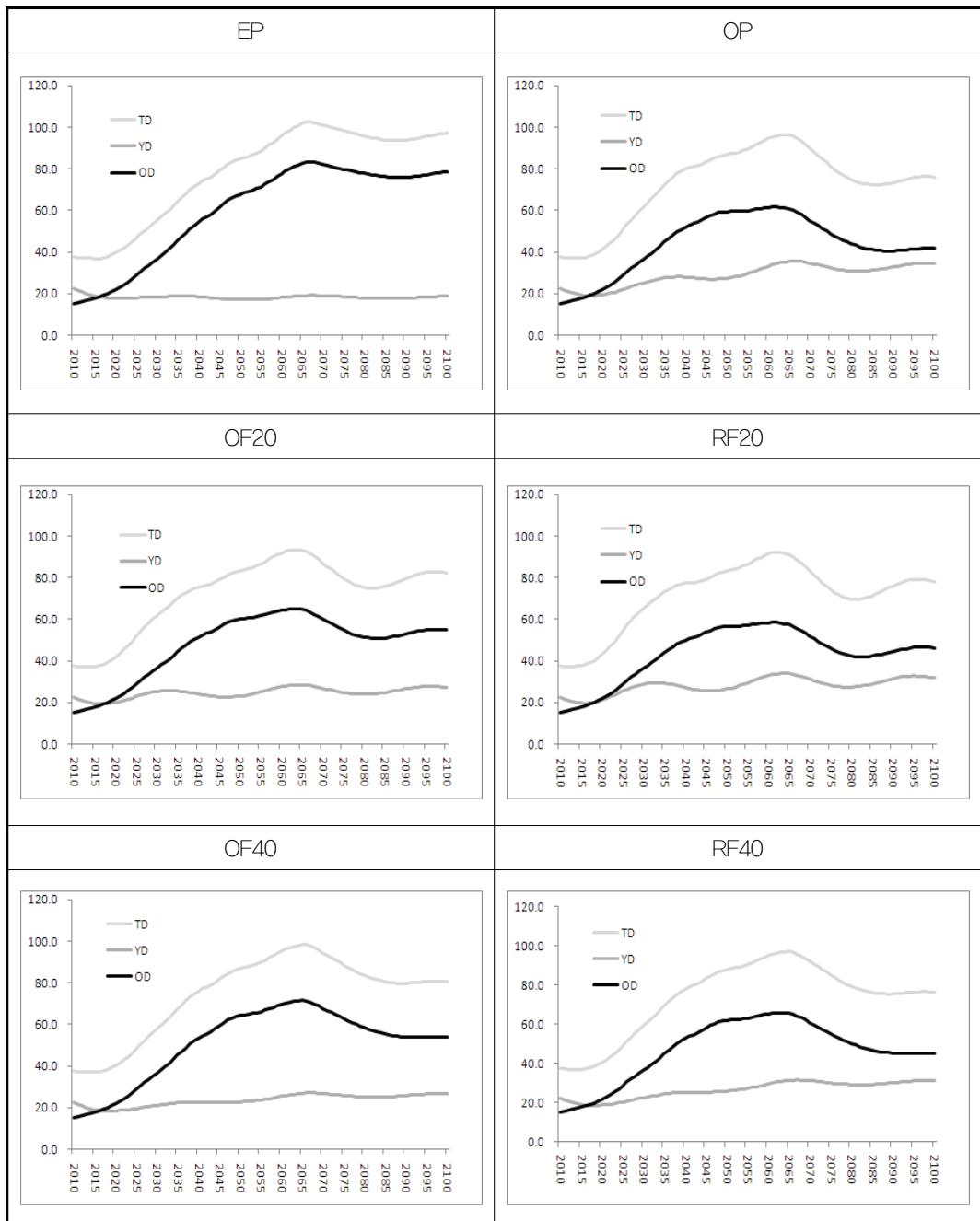
□ 적정출산율 및 적정인구규모 경로와 생산가능인구 변동 추정



▣ 적정출산율 및 적정인구규모 경로와 고령화수준(노인인구비율) 변동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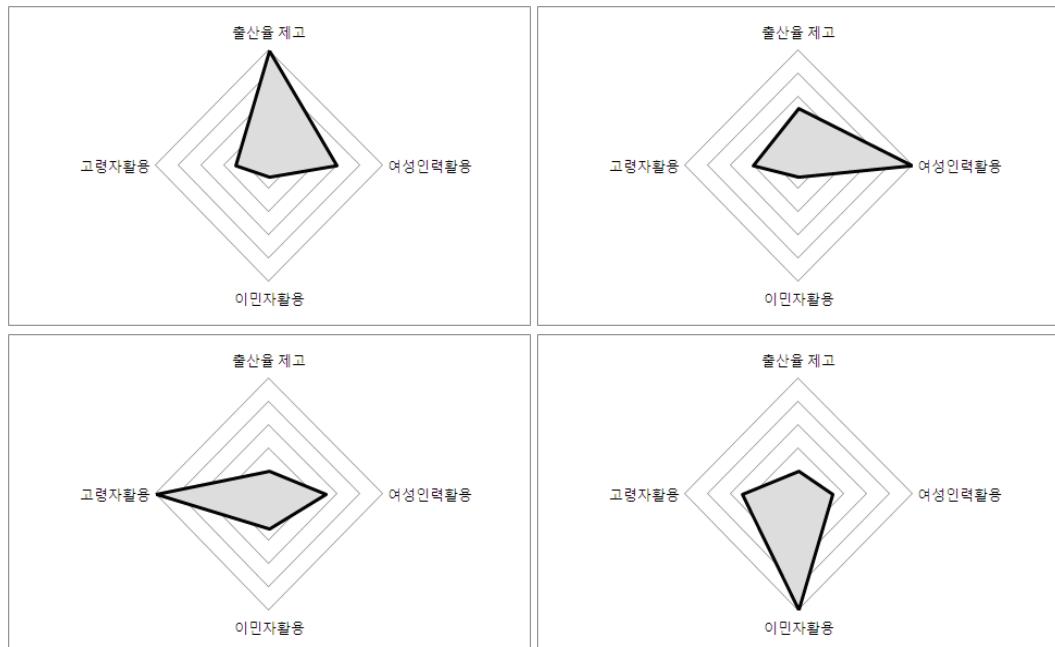
□ 적정출산율 및 적정인구규모 경로와 부양비 변동 추정



주: TD는 총부양비, YD는 유소년부양비, OD는 노년부양비

VI. 시사점

- 현출산수준을 적용한 인구 변동과 적정인구 간의 괴리가 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정책적으로 출산율 제고가 가장 중요
-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인구대체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적정인구에의 도달은 불가능
- 결국 출산율 제고를 우선시 여기되, 실질적인 인구와 적정인구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인력활용, 고령자인력활용, 외국인노동력 활용 등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시급
 - 어느 정책의 극단적인 선택보다 정책의 우선순위(cost-benefit 등 분석에 기초)를 고려한 최적정책조합(best policy combination) 설정 필요
 -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은 중장기적 시간프레임에 입각
 - * 이와 같은 연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